

“공감이란 한 존재가 다른 존재 만나는 순간”

전남대 '광주전남이 읽고 특하다' 한책 콘서트
정혜신 박사-이명수 작가 대담 형식 진행
공감 받는다고 느꼈을 때 마음의 치유 시작 돼

“공감이란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비로소 만나는 순간이자 경험이며 사건이다. 마치 목욕탕에서 옷을 벗고, 화장을 지우고, 거추장스러운 장식이거나 ‘계급’을 떼고 맨몸의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순간이다.”

26일 전남대학교가 주최하는 ‘2019 광주전남이 읽고 특하다’ 작가 초청 한책 콘서트에 초청된 ‘당신이 옳다’의 정혜신 박사는 시종일관 부드러운 목소리로 편안한 분위기로 콘서트를 이끌어갔다. 이날 전남대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콘서트에는 이명수 심리기획자가 대담자로 나서 ‘집밥’ 같은 치유와 공감의 필요성에 대해 두 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누었다.

정혜신 박사는 “공감”을 정의하면서 “인간과 인간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났을 때 심리적으로 지각변동이 일어난다”고 했다. 공감을 받는다고 느꼈을 때, 어떤 이는 지옥에서 한 발 뺄 수도 있고, 바로 그 지점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날 콘서트 현장에는 학생과 교수, 지역민, 지역 독서 동아리 등 모두 3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정혜신 박사는 그동안 거리의 치유자로서 광주5·18 등 국가폭력 희생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에 힘써왔다. 이번 콘서트에서 정 박사는 그동안 만나왔던 이들의 심리에 대한 통찰과 치유 사례 등을 풀어냈다.

특히 대담 서두에 “광주는 5·18 피해자 심리 치료를 위해 자주 왔던 터라, 고항처럼 푸근한 곳”이라며 친근함을 표했다.

이어 정 박사는 대담자로 나온 이명수 심리기획자에 대해 “제가 하는 일의 모든 배후는 남편 이명수”라고 소개해 청중들로부터 웃음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작가는 “이명수가 하는 모든 일의 배후는 정혜신”이라고 응수해 부장 부수의 일면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이명수 작가는 “심리학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분야이다. 그러나 학위과정은 어디에서 했고, 공부하는 무엇을 했는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강했다”며 “중요한 것은 심리학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적정 심리학’을 고민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적정 심리학”이란 전문가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치유를 모색할 수 있는 심리학을 일컫는다. 이 작가는 이러한 전제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으며 이 사실을 안다면 결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언급했다.

정 박사는 실제 심리 치료 과정에서 만난 사례를 소개하며 상대의 마음을 헤아



리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모든 인간은 개별적인 존재다. 모든 심리 치유의 기본은 누구의 부모, 누구의 자식이 아닌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하고 존중 받는 데 있다. 또한 일상생활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요인은 ‘공감’이며 이 공감을 ‘당신이 옳다’라는 것이다.”(정혜신)

정 박사는 의외로 치유는 간단하다고 덧붙였다. 그것은 “마음을 옳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행동과 행위를 틀릴 수 있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은 그 자체는 옳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죽 했으면 그런 마음까지 가졌겠느냐”며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 공감의 실체라는 의미다.

“문이란 존재 자체라면 문고리는 존재의 ‘감정이나 느낌’이다. 공감과 격의 마지막 문고리라는 존재가 느끼는 감정이나 느낌이다. 존재의 감정이나 느낌에 정확하게 눈을 뜨고 공감할 때 사람의 속마음은

결정적으로 열린다. 공감은 그 문고리를 돌리는 힘이다.”

사실 우리 사회의 트라우마현상은 극단의 고통이 있는 곳이다. ‘공감’을 매개로 한 집밥 같은 심리학이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특 콘서트에 참석한 김성자 씨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존재인데 그것의 기초는 공감이 아닌가 싶다”며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비롯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는 지난 7월부터 독서클럽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전시회(10월), 한책 문학기행(11월), 독서후기 공모전(11월), 한 책 독서퀴즈 이벤트(12월) 등 다양한 독서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원중의 달거리, 싱어송라이터 허만성 초청 공연

오늘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평화의 선율을 전하는 ‘땀 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이 이달에도 열린다. 30일 오후 7시 30분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직홀.

109번째를 맞는 이번 공연의 주제는 ‘태풍(颱風), 광풍(狂風)’으로, 태풍과 같이 변화무쌍한 현실을 평화의 바람으로 이겨내는 방법을 모색하는 의미가 담겼다.

이달의 초대 손님은 싱어송라이터 허만성이다. 안동 지역 음악가로 ‘떠나라 사랑아’, ‘우리 사랑 기억하겠네’ 등 곡을 발표한 허씨는 현재 TBC 대구방송 ‘허만성, 이지현의 오후 음악여행’에서 메인 DJ로 활동 중이다.

이날 공연은 김원중(사진)과 네티나무밴드, 듀오 꽃향, 프롤로그인 밴드, 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 샌드아티스트 주홍



등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입장료는 감동후불제로 진행된다. 입장료 대신 공연 이후 관객이 감동 만큼의 금액을 모금함에 넣는 방식으로, 수익금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땀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양상발 ‘마주얼’ 공연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바로크 시대 음악 조명하다

‘마주얼’ 오늘 월요콘서트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공연

양상발 ‘마주얼’이 30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공연 ‘바로크와 마주하기’를 연다.

바로크 시대 음악을 조명하는 빛고을 시민문화관 월요콘서트 ‘원더풀 바로크 20’ 15번째 무대로 열리는 이날 공연은 바로크 음악 콘서트에 맞게 음향과 무대를 고려한 소규모 실내 무대로 펼쳐진다. 특히 악기를 다양하게 편성하고 작곡가의 특성이 잘 드러난 곡을 선정해 다소 비슷하게 들리는 바로크 음악을 다채로운 음색으로 선보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은 헨델의 ‘사바 여왕의 도약’, 텔레만의 ‘4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장조’를 연주하고, 바흐의 ‘파르티타 2

번 중 사콘느’, ‘무반주 첼로 모음곡 3번 중 G장상의 아리아&가보트’,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등을 무대에 올린다.

양상발 마주얼은 ‘작곡가, 연주자, 관객이 열(정신)을 마주하며 소통한다’는 의미를 담아 지난 2015년 창단한 현악 앙상블 단체로, ‘오월음악회’, ‘광주 다락’ 초청 연주회 등에서 연주했다. 이날은 바이올린 김도연·문호정·이미선 등 12명, 비올라 정호준·안예주·김주영, 첼로 윤소희·김태은·조혜원, 더블베이스 류수경·염찬미와 피아노 반주진이 출연한다.

한편 다음 월요콘서트 공연으로는 10월 7일 광주여성성소울리스트앙상블의 ‘바로크 시그니처’ 공연이 마련될 계획이다.

입장 1만원, 학생 5천원. (선착순 100명)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세계 최초 금속활자 ‘직지’ 시로 형상화

광주 출신 강산에능분찬치 시인 ‘直指’ 펴내

세계 최초 금속활자 직지(직지심체요절)를 소재로 한 시집이 발간돼 화제다. 광주 출신 강산에능분찬치(본명 강성수) 시인이 펴낸 ‘直指 下-직지의 뜻밖엔 안긴 바람’(미디어엔)은 세계적 보물인 직지를 되찾자는 열망과 직지라는 문화재에 대한 일대기를 의인화한 작품집이다.

시인이 직지를 소재로 작품을 쓰게 된 계기는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인은 서유럽 6개국을 둘러보는 여정에서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을 방문하게 됐다. 그곳에서 그는 “세계 최초 금속활자 직지 주인은 코리아 한국에 바로 반환하라”고 쓴 스케치북을 들고

시위를 했다. 그로 인해 적잖은 곤욕을 치렀지만, 이를 계기로 창작을 하게 된다.

시집에는 150여 편의 작품이 담겨 있다. 모든 시들은 직지의 모든 것을 밝혀내기 위한 열망의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의 거대한 장편 서사시로 읽어도 무방하고 각각의 의미 있는 시로 접근해도 될 만큼 공력이 담겨 있다.

“백운화상은/ 고려의 큰스님 범명// 직지심체란/ 깊디 깊은 심정으로// 하나의 주관적인/ 마음 속 불성// 요절은/ 붓다의 뜻일레// 즉, 선사들의 근본을 요약한 의미/ 초록이라는 글자는/ 간추린 정리// 불구토인 화염/ 연화계에서// 불

경, 법어, 경전으로/ 직지심체요절이었다.”(‘직지심체요절 1’ 전문)

시집 곳곳에는 직지에 대한 시인의 애정과 아울러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자긍심이 담겨 있다. 노장수 시인은 해설에서 “시인이 펴내는 ‘직지의 뜻밖엔 안긴 바람’은 인물이 아닌, ‘직지’라는 문화재의 일대기를 의인화로 다룬 독특한 서사시집”이라고 평한다.

한편 서라벌예대(현 중앙대 예술대)를 졸업한 강 씨는 1966년 김광섭의 추천으로 ‘자유문학’에 시로 등단했으며 시집 ‘갯마을’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 학기 한 권 읽기’ 영향
어린이·청소년 문학 인기

‘한 학기 한 권 읽기’ 영향으로 어린이·청소년 문학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24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1월부터 8월 사이의 어린이 및 청소년 문학 도서 판매량을 집계했다.

그 결과 2018년 동화책 판매량은 87만여 권, 청소년 문학 도서 판매량은 23만여 권으로 2017년 동기 대비 각각 13.5%, 11.1%씩 증가했다. 올해 어린이 및 청소년 문학 도서 판매량은 각각 107만여 권, 27만여 권으로 24%, 16.9%의 증가율을 보여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OK 당구장

동구 대인동 220 대인농협 옆 (가우무대 지하)
포켓대 당구대설치, 최신시설완비
냉난방 완비 친절, 신용 본위
☎ 010-8005-0188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 010-3906-1718

광주갤러리경매장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후문앞 참좋은빌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2시부터
☎ 010-6778-9330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

동구 호남동 13-3
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환영!!
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터
☎062)232-0038, 010-2290-0038

완도전북

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010-2831-9257

태극익스프레스

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구니 무료
친절, 신용, 본위
☎062)222-2424, 011-664-2202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관·양관)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청강창호

북구 청계로 67(용봉동)
현대하이사시 + 피엔에고사시
제작설치전문
☎062)528-7711, 010-3612-9794

학산운명감정원

동구 대인동 고운하이츠 오피스텔 302호
사주, 작명, 개명, 공합, 신수, 택일
사업, 시험, 진급, 결혼, 중매 (경력33년)
원장 전홍석 ☎ 010-8003-9000

그집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돼지고기 전문·달걀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고전방

동구 궁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사주·운세·공합·택일
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클로버부동산

북구 필문대로11번길 6 (용봉동)
모든 부동산 사고 팔니다.
임야, 전답, 토지, 상가건물
재건축·재개발 매매·임대
☎ 010-5707-6676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궁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컴비로스크린, 전동로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로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